

광주 음식점 사장님 10명 중 3명은 '2030'

2021년 30대 이하 사장 비중 광주 19.2%·전남 14.4% 도·소매업 '최다'...제조업·건설업 10명 중 1명 꼴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불황형 창업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1년 30대 이하 사장 비중은 광주 19.2%·전남 14.4%로 나타났는데, 전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는 30대 이하 음식점·주점업 사장 비중이 30%에 달하며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5일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지역 사업체 수는 광주 17만973개·전남 23만4688개 등 40만5661개로, 1년 전보다 1.8%(7357개) 증가했다.

광주 사업체는 전년보다 0.5%(888개) 늘고, 전남은 2.8%(6469개) 증가했다. 전국 사업체는 지난 2020년 603만개에서 이듬해 608만개로 늘며, 평균 증가율이 0.8%(4만7680개)로 집계됐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3.8%)이었고, 충남(3.2%), 전남(2.8%) 순으로 높았다. 광주 증가율(0.5%)은 평균 증가율 0.8%를 밑돌며 전국에서 6번째로 낮았다.

광주에서 사업체가 가장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으로 4곳 중 1곳꼴(25.3%·4만3193개)이었다. 1년 사이 사업장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1558개(8.9%) 증가한 운수·창고업이었다.

전남에서도 도·소매업 사업체가 23.4%(5만4801개) 비중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전기·가스

·중기 및 공기업·공공기업 사업체가 1425개(12.5%) 늘어나며 최대 증가 폭과 증가율을 나타냈다.

대표자 나이가 30대 이하인 사업체는 광주 3만2851개·전남 3만3769개 등 6만6620개로, 1년 전보다 7.0%(4367개) 증가했다.

광주 30대 이하 사업체는 전년보다 5.3%(1645개) 늘고, 전남은 1년 사이 8.8%(2722개) 증가했다.

전국 30대 이하 사업체 증가율은 6.6%(103만→110만개)로 나타났다.

30대 이하 사업체 비중은 광주 19.2%·전남 14.4%를 나타냈다. 이는 1년 전(광주 18.3%·전남 13.6%)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21년 광주 30대 이하 사장 비중은 전국 평균(18.1%)을 웃돈 반면,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 전남은 2년 연속 16개 시도 꼴찌를 기록했다.

광주에서 30대 이하 사장이 많은 업종은 도·소매업(9666개)→숙박·음식점업(6596개)→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3072개)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도·소매업(8955개)→숙박·음식점업(7040개)→운수·창고업(3133개) 순으로 많았다.

지역 제조업 사업체 가운데 30대 이하 대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12.5%(1446개)·전남

10.7%(1867개)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사장인 제조업체는 1년 사이 광주 3.7%(51개)·전남 9.3%(159개) 늘었는데, 전남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4.1%)의 2배 수준으로 16개 시도 최고 증가율을 나타냈다.

광주는 2년에 걸쳐 음식점·주점업 30대 이하 사업체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21년 광주지역 음식점·주점업 사업체 2만1744개 가운데 6504개 대표자가 30대 이하로,

그 비중이 30%에 육박했다. 전남 음식·주점업은 5명 중 1명꼴인 20.4%(3만2669개 중 6672개)가 30대 이하 사장이 운영하고 있었다.

30대 이하가 대표인 건설업체는 광주 1997개·전남 2701개 등 4698개로, 1년 사이 10.1%(432개)나 증가했다.

광주·전남 건설업체 10곳 중 1곳꼴(11.6%)은 30대 이하가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봄나물로 입맛 돌아오 신세계백화점에서 모델들이 봄나물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 점포에서 봄나물 상품전을 진행한다. <신세계백화점 제공>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비용 전액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신청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단체보험 보장 항목은 골절 진단, 상해 입·통원, 화상 진단, 암 진단, 정신건강 지원 등이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에 발생한 상해·질병은 365일 보장한다. 보장 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직전 12개월 적립 일수가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는 단체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1만명을 모집할 때까지 접수해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신청자격과 세부 안내 등 단체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성과급 잔치' 카드사...고객은 운다 신용대출 평균금리 최대 18% 육박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카드회사들이 고객에게 최대 18%에 육박하는 고금리 신용대출로 수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여신금융협회 등에 따르면 카드회사의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가 17.70%로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가 16.21%, KB국민카드 14.42%, 비씨카드 13.04%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삼성카드는 0.14%포인트 올랐고 비씨카드도 0.05%포인트 상승했다.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는 우량 고객의 경우도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삼성카드가 15.07%, 비씨카드가 12.42%, 국민카드가 11.20%, 신한카드가 11.08%로 10%를 훌쩍 넘었다.

카드사의 신용대출 상품별로 보면 단기 카드 대출인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우리카드가 19.43%로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육박했다. 국민카드의 현금서비스는 18.45%, 삼성카드와 하나카드가 17.96%, 롯데카드는 17.80%, 신한카드가 17.70%, 비씨카드는 17.30%로 17~19%대 고금리를 받았다.

매달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결제성 리빙빙의 평균 금리는 우리카드가 18.35%, 롯데카드 17.82%, 국민카드가 17.33%, 현대카드가 17.21%에 달했다.

리빙빙은 신용카드 사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나머지 결제액은 일부 이자를 부담하고 다음 결제 때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도 취약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장기 카드 대출인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우리카드가 16.36%로 가장 높은 가운데 삼성카드가 15.66%, 신한카드가 15.03%, 롯데카드가 15.02%로 15%가 넘는 금리가 적용됐다.

이처럼 카드사들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지속하면서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고객의 이용 한도 및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 기존 카드 상품 폐지 등 고객 서비스를 줄줄이 줄이고 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인 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두면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어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도 실적 호조로 지난해보다 많은 성과급을 받을 예정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달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고객에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으며 관련 부가 서비스 축소도 불가피하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난 만큼 직원에 대한 높은 성과급 지급 또한 정해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수스



광주은행 '톡톡 자문단' 발대식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오른쪽 5번째)은 최근 광주시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고객 참여 '톡톡(Talk-talk) 자문단' 7기 회원 10명과 발대식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고객 중심 경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자문 활동을 하며 금융 상품·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제공>

효성티앤에스, 블록체인 지갑 활성화 나선다

갤럭시아메타버스와 NFT 협약

블록체인 전문기업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최근 효성티앤에스와 NFT(대체불가능토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NFT 포털 비즈니스인 이하 'NFTow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협업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NFTtown 회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인 갤럭시(GXA)를 총괄 운영한다. 효성티앤에스는 NFTtown에서 사용되는 블록체인 지갑에 갤럭시 전용 지갑을 추가해 연동할 계획이다.

NFTown은 NFT와 관련된 뉴스, NFT 거래 현황 등 다양한 NFT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시범 사이트를 통해 오픈 베타로 서비스 중이며 이달 중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소비가 NFT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마음에 방문한다는 설정으로 갤러리, 라이브러리, 스킨 등 다양한 코너를 제공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 관계자는 "NFT 타운에 갤럭시 전용 지갑 'Galaxia Wallet'을 추가하며 갤럭시의 사용처를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며 "향후 효성티앤에스와 함께 자체 모바일 앱과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한 웹 3.0 지갑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 계열사인 효성티앤에스는 국내 및 미국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전세계 46개국에 진출해 금융자동화술서를 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블록체인 및 NFT 영역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자 NFT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NFT 포털 서비스 NFTtown을 최근 오픈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김건오 효성티앤에스 상무(왼쪽), 고광림 갤럭시아메타버스 대표(오른쪽)가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 수출상' 찾습니다

도, 7일까지 접수...기업 7곳·유공자 9명 등 선정

전남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 달성에 공로가 큰 중소기업과 수출 유공자를 발굴해 표창·격려하고 기업인의 수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18회 전라남도 수출상' 신청을 오는 7일까지 접수한다.

시상에선 수출기업 7개사, 수출 유공자 9명, 감사패 2개 기업을 각각 시상한다.

수출기업엔 대상 1, 우수상 2, 장려상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유공자는 근로자 5, 수출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 4명을 선정한다. 감사패는 해외 수입기업 2개 사에 전달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도내에서 기업 활동을 한 수출기업이다. 수출 유공 근로자는 이 기업에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종사 중인 상시 근로자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2022년 수출 관련 중앙단위 포상이나 전남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한 기업이나 개인,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개인은 제외되며 신용 불량으로 등록됐을 경우 수상할 수 없다.

수상 기업에는 성과와 함께 전남형 수출 기업육성 자금 지원, 수출기업 특례 보증지원 등 각종 수출 지원정책 우선 참여 특전이 부여된다.

수출기업(근로자)은 시장·군수 또는 수출 유관 기관장 추천, 수출기관 임직원은 소속 기관 추천을 받아 신청서,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및 기타 심사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남도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2021년 대비 15.5% 상승한 494억 달러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53회)

당첨 번호						2등 보너스숫자	
22	26	29	30	34	45	15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4,090,367,411				7	
2	5개숫자+ 보너스숫자일치	74,563,990				64	
3	5개 숫자일치	1,766,135				2,702	
4	4개 숫자일치	50,000				136,905	
5	3개 숫자일치	5,000				2,367,764	

광융합기업 중동·미주 지역 판로개척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 22개 기업과 해외전시회 공동관 꾸러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최근 중동 및 미주 지역 공략을 위해 국내 광융합기업 22개사와 함께 해외 전시회에 공동관을 꾸러 판로개척을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진흥회는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열린 세계 3대 의류기기 전시회 '두바이 의류기기전시회' (ArabHealth2023, 아랍헬스)에서 국내 광의류기기 12개사와 UAE(아랍에미리트) 지역 해외바이어들에게 K-방역 및 뷰티·헬스케어 제품을 선보였다. 이에 따라 총 450건의 상담과 20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100만 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 실적을 거뒀다.

진흥회는 전시회장을 찾은 UAE 자산관리공사 관계자와 국내 광의류기기기업의 두바이 현지 진출과 K-메디컬센터 및 K-광의료기기 소평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MOU도 체결했다. 향후 국내 광의류기기기업들의 중동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UAE는 병원 시설 현대화와 민간 병원 확대, 의료관광산업 육성 등 정부 차원에서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에 따른 한국과의 교류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UAE 지역 소비자의 뷰티 및 건강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UAE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진흥회는 1월31일부터 2월2일까지 열린 '미국광학전시회' (PhotonicsWest 2023, 포토닉스웨스트)에 국내 광학·광통신 10개사와 함께 한국관을 운영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미주·유럽 해외바이어들에게 국내외 우수한 광학렌즈 및 레이저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진흥회에서는 미주지역 시장 진출을 위해 매년 전략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주요 해외 바이어와 학회 인사들이 전시회 기간중에 꾸준히 방문해 95건의 상담, 3400만 달러 수출 상담을 통해 약 33만 달러의 계약 체결 실적을 거뒀다.

진흥회는 현지에서 발굴된 유망 바이어들은 오는 8월과 11월 열린 광융합수출 상담회 및 국제 광융합산업 로드쇼에 전략적으로 초청해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